

민주당 광주 서구의원 호주행 '입방아'

사전심사 절차 무시...참가자 구성도 제멋대로 구청은 '쉬쉬'·당은 '시간 촉박' 황당 해명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5박6일 호주 시드니 연수를 다녀오면서 사전에 자문 심사도 거치지 않고 참가자도 제멋대로여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원 7명과 공무원, 민간인 등 27명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왔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로 가입한 회원국의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서구 여건에 맞는 양질의 정책을 고안한다는 게 연수 목적이었다.

구의회는 김태영 부의장을 비롯해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장, 오광교, 고경애, 윤정민, 박영숙 의원 등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참여했다. 구청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7명과 노인복지관 관계자 10명이 함께 했다.

서구의회는 구의원 등 10명에게 알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으로 1인당 198만원씩 총 198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구청은 2500만원을 지원했다.

2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었지만 의회는 연수와 관련해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해외 연수 가는 의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구의회는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공문은 내부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황당한 이유로 심사가 생략됐다.

광주시당은 올해 초 발생한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사건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열어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

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외유성 해외여행 근절과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국외연수 개선 TF'를 꾸려 '광주시당 지방의원 국외연수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출장 30일 전 자문위원회에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구의원들은 출장 10일 전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10일 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문위 구성에 시간이 촉박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의원들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답

했다. 수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연수에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의원들은 심사 없이 '통보'만 하고 연수를 떠난 셈이 됐다.

구의원 참석 대상도 제멋대로였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상임위는 사회도시위원회다. 출장 간 7명 중 사회도시위 소속은 5명이다. 김영선 운영위원장과 고경애 의원 등 2명은 기획총무위 소속이다.

참석자 소속 정당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6명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 1명은 이번 연수에서 빠졌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면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신청을 받는 것이 맞다. 또 연수 취지에 맞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해외 연수를 두고 뒷말이 많다"며 "소관 상임위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본인들끼리 외유성 출장을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시민 박모씨는(46)는 "시민들과 달리 세금으로 터럭 해외여행을 가는 의원들을 보면 박탈감마저 든다. 그게 시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예천군의회 논란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태풍과 돼지 열병 등으로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반납하고 시정에 매진하는데 태풍 '미탁'이 북상해 물난리가 난 시국에 태풍을 피해 관광을 간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봉우 기자



아직 남아있는 태풍의 흔적 6일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태풍 '미탁'으로 말미암은 침수 피해 복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시 옥계해변 백사장 일원에 풍량이 물고 온 해초와 각종 부산물들이 흩어져있다.

전두환 '광주 5·18재판' 오늘 열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88)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일곱번째 공판기일이 7일 진행된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1980년 5월 당

시 헬기목적의 산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재판에도 피고인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 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괴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기면을 쓴 사탄', '피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불법 그물로 어린조기 싹쓸이' 中어선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좁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기존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97t·영구선적·승선원17명)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4시10분쯤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서방 약98km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 기준(50mm)보다 작은 40mm의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조기까지 1t가량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어장 형상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해어업관리단과 특별활동단속, 중국어선 감시 전담부서 등을 24시간 가동해 중국어선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 들어서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2척을 나포, 담보금 1억원을 징수했다.

브레이크 풀린 화물차 식당 돌진 2명 부상

4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1t 화물탑차가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탑차가 식당 쇼윈도와 유리문을 뚫고 내부까지 진입하면서 식당 아르바이트생 등 20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식당 앞을 지나던 여학생은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상을 입고 깨진 유리에 베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유리파편이 튀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대 초반의 화물차 운전자가 택배 배달을 간 사이 차량 핸드를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좌회전하던 레미콘 넘어져 운전자 숨져

4일 오전 8시18분쯤 나주시 세지면 세지교차로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이용해 트럭을 바로 세워 운전자 A씨(48)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레미콘 트럭이 좌회전하다 중상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에서 가스 흡입 후 담뱃불 붙이려다 폭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담뱃불을 붙이려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 인근 도로에서 A씨(37)의 승용차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A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서 키 꽂힌 외제차 훔쳐 달아난 20대

광주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외제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유료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7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료주차장에서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그대로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